

# 전남도정 10년사

Jeonnam, 10years  
2004.6.-2014.6.

---





100년을 그린 10년의 발자취  
전남도정 10년사(2004. 6. ~ 2014. 6.)



# 全羅南道

# 100년을 그린 10년의 발자취

전남도정 10년사(2004. 6. ~ 2014. 6.)

발간사  
축사

6

## 제1장 전남의 여건과 도정방향 00

- 제1절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 00
- 제2절 도정 운영방향 00

## 제2장 7대 분야별 역점추진 시책 00

- 제1절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00
  - 제1항 기업 2,000개 유치 00
  - 제2항 특성화산업 조성(산업단지 조성)
  - 제3항 외자유치
  - 제4항 생물산업 진흥(전남 생물산업, 미래 성장동력 기반 마련)
  - 제5항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 제6항 5GW 풍력프로젝트(세계가 주목하는 5GW풍력프로젝트)
  - 제7항 풍력시스템 Test-bed센터 구축
  - 제8항 에너지농장사업
  - 제9항 에너지 자립 섬
  - 제10항 조류발전
  - 제11항 사회적기업
  - 제12항 마을기업
  - 제13항 협동조합
  - 제14항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 제15항 대학벤처 동아리, 모의투자대회
  - 제16항 일자리 취업박람회
  - 제17항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 제18항 중소조선산업 활성화
  - 제19항 해양레저장비산업 구조고도화
  - 제20항 친환경 운송차량산업 기반구축
  - 제21항 신소재산업 육성
  - 제22항 고기능 세라믹 원료소재산업
  - 제23항 헬스케어 소재산업 기반구축
  - 제24항 수출확대
  - 제25항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 제26항 융산역 광주·전남 비즈니스라운지 운영
  - 제27항 고소득 농어가와 농수산 특성화고교 멘토링제
  - 제28항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
  - 제29항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제30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 제2절 3농 정책 00

- 제1항 유기농·무농약 인증 00
- 제2항 친환경 돌봄 조성
- 제3항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 00
- 제4항 근중산업 육성 00
- 제5항 축종별 유통회사 설립
- 제6항 수도권 단체·학교급식 공급 확대
- 제7항 전남 친환경 식품유통센터 구축
- 제8항 농부장터 운영
- 제9항 마을반찬사업
- 제10항 행복마을 조성
- 제11항 은퇴도시 개발
- 제12항 전원마을, 뉴타운, 체험마을 조성
- 제13항 노인공동생활시설(화순)
- 제14항 농업소득사업
- 제15항 귀농인 유치
- 제16항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농업소득사업, 기숙학교, 친환경기숙사건립 통합)
- 제17항 농어촌 학생 영어캠프 운영
- 제18항 인재육성 장학기금 조성
- 제19항 나무은행
- 제20항 난대수목원 개발
- 제21항 목공예센터 개관 및 목공예 토요경매
- 제22항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설립
- 제23항 다목적 사방댐 조성
- 제24항 비교우위 특산자원 산업화
- 제25항 해안가지역 조생종 벼 확대 재배

## 제3절 바다경영

- 제1항 양식 섬 조성
- 제2항 어업인 주식회사 “수산물 생산에서 판매까지”
- 제3항 천일염 명품화·세계화 기반구축
- 제4항 수산종묘 생산
- 제5항 전남 슈퍼김 1호, 김 양식의 새로운 역사를 쓰다
- 제6항 김 무기산 사용근절로 친환경 김 생산
- 제7항 섬 주민 교통비, 생필품 물류비 지원
- 제8항 전복, 세계시장 재패를 꿈꾼다
- 제9항 수산물 양식면적 확대
- 제10항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업금지기간 조정
- 제11항 정부가 지원하는 수산분야 재해보험 확대
- 제12항 전국 최초 친환경수산 선포식
- 제13항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물제 도입
- 제14항 안전수산물 생산 및 유통강화
- 제15항 진도항 배후지 개발
- 제16항 어업기반시설(인양기·부잔교) 구축
- 제17항 품목별 지역 특화연구센터 건립
- 제18항 적조 황토살포 금지
- 제19항 사람 사는 섬 만들기
- 제20항 연구해어업 구조조정

## 제4절 관광개발 및 문화융성

- 제1항 사파리 아일랜드 개발
- 제2항 해도림(海島林) 조성사업 추진

제3항 전남 요트마린 실크로드 조성	
제4항 전남 관광진흥기금 조성·운용	00
제5항 국제크루즈, 전세계 연계 해외관광객 유치	
제6항 실감미디어 R&D기반 구축	00
제7항 도립도서관, 1읍면 1도서관 조성	
제8항 도립국악단 토요공연	00
제9항 남도예술은행 토요그림경매	
제10항 비교우위 문화자원 세계유산 등재	
제11항 고급 숙박시설 유치(영산재, 오동재)	
제12항 전라남도 체육대회 군(郡)단위 순회 개최	
제13항 동·하계 전지훈련팀 유치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	
제14항 국제해양레저 스포츠대회 추진	
제15항 테마 섬 개발 사업 추진	
제16항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제17항 이름없는 섬 이름지어주기	
제18항 갯벌도립공원 지정	
제19항 함평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조성	
제20항 개구리 생태공원	
제21항 명량대첩축제 개최	
제22항 항몽유적지(용장성, 남도진성) 정비	
제23항 장흥 석대들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 조성	
제24항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 사업	
제25항 강강술래 전국화·세계화 추진	
제26항 전통형태 관광유람선 건조	
제27항 여수 경도 해안관광단지 조성	
제28항 남도소리 올림터 공연장 건립	

**제5절 지역개발**

제1항 솔라시도 건설	
제2항 빛가람도시 건설	
제3항 남악신도시 개발	
제4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	
제5항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재지정 추진	
제6항 신발전지역 발전·투자촉진지구 지정	
제7항 도서지역 양질의 수돗물 공급	
제8항 상수도시설 확충	
제9항 환경산업진흥원 건립, 관련기업 유치	
제10항 전기자동차 보급	
제11항 경관기본계획 수립과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제12항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제13항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제14항 국도·지방도 확충	
제15항 흑산도 신공항 건설	
제16항 무안국제공항 개항, 활성화	
제17항 연륙·연도교 건설	
제18항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제19항 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제20항 농어촌 방범용 CCTV 설치추진	
제21항 마을 앞 보행환경개선사업	
제22항 F1코리아그랑프리 개최, 후방산업 육성(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사업)	
제23항 튜닝산업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제24항 F1코리아 그랑프리 개최	
제25항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후방산업 육성	
제26항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및 후방산업육성	
제27항 2012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제28항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	00
----------------------------	----

**제6절 맞춤형 복지**

제1항 전남복지재단 설립·운영	00
제2항 위기가정 긴급 지원	
제3항 무지개마을 조성	00
제4항 전라남도 노인복지회관 건립	
제5항 공중목욕장 건립	
제6항 응급의료헬기 도입·운영	
제7항 은퇴의사 초청 행복의원 개원	
제8항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제9항 통합의료센터 건립	
제10항 여성 취업·창업박람회	
제11항 전남 여성프라자 설립·운영	
제12항 여성발전기금 조성·운영	
제13항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제14항 영·유아 수당보육 확대	
제15항 소방인력 3교대 실시	
제16항 태풍 등 자연재해 항구적 복구대책 마련	
제17항 기초 소방시설 보급	
제18항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제19항 사회공헌사업 유치	
제20항 취약계층아동 새싹꿈터 운영	
제21항 도서지역 한방공중보건외 배치	
제22항 풍수해보험 가입	
제23항 의류모집운동 대대적 전개	

**제7절 현장행정**

제1항 기업 투자협약식 현장 개최	
제2항 민간공가 원가 무료자문단 운영	
제3항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제4항 찾아가는 청렴교육	
제5항 훈훈한 지역만들기	
제6항 음식문화 선진화	
제7항 범·도민 친절운동	
제8항 인력관리부서 설치	
제9항 도지사 민생탐방 및 현안사업장 방문	
제10항 도민명예기자 및 민원메신저 위촉·운영	
제11항 도민 무료 법률상담	
제12항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제13항 남도친구들, 남도사랑봉사단 운영	
제14항 숙박업소 환경개선	
제15항 남도음식문화해설사 양성	

**제3장 10년 동안 전남도의 변화상** 00

<b>제1절 기본통계</b>	00
-----------------	----

<b>제2절 분야별 통계</b>	00
-------------------	----

(1) 인구감소 폭 대폭 둔화



## 전남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

제34대 도지사 취임식에서 「후손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힘 있는 전남건설」을 역설한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전남에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시작은 우리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약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딱 한 달만인 2004년 7월 인구 200만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화가 본격 시작된 1970년대 이후 전국 인구가 51% 증가하는 동안 우리 전남은 41%나 감소하였습니다. 우리지역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기회와 희망이 그 만큼 줄게 마련이었고 지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따뜻한 햇빛, 깨끗한 물, 섬과 해안선” 등 우리 전남만이 가진 자연친화적인 자산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전남을 “녹색의 땅 전남”으로 명명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녹색산업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시장개방으로 모두가 어렵다던 농업에 과감하게 친환경 개념을 도입하고,

미래생명산업으로 육성하였습니다. 기업화·규모화를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농업 57%, 축산 39%에 달하는 전국 점유율을 기록하여, 전남은 친환경 메카로 변신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처음 조사를 실시한 2006년 500여명에 불과하던 역대부농도 4,000여 농가를 넘어서는 등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웰빙바람을 타고 고소득 농가가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미래의 블루오션으로 평가받는 바다경영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대규모 수출 전략단지인 ‘양식 섬’을 조성하고 유통회사도 설립하였습니다. 완도전북주식회사의 경우 설립 5년만에 주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수산업 발전의 새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섬과 갯벌, 해안선 등 친환경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산업 육성에도 힘썼습니다.

우리 앞에 직면한 에너지 위기 시대에 대비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많은 일사량(태양광), 풍속(해상풍력), 빠른 조류(조류발전) 등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이 미래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전남은 이미 전국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의 20%에 육박하여 미래 에너지문제의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마련을 위해 개도 이래 최초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해 국제행사 개최는 불가능하다.”는 편견을 뒤로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그래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행사를 차근차근 준비하였습니다. 4대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전 세계가 전남을 주목하게 되었고 도민들께서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부존자원에 대한 성분분석 등 R&D 기능을 담당하게 될 연구기관으로 생물산업진흥원을 비롯해 총 12개를 설립하고 그 인근에 6개소의 특성화산단을 조성하여 연관기업을 집중 유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04년 이후 4,100여개의 기업, 44조원이 투자되었으며, 15만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졌습니다. 지방세수도 2004년 3,200여억원에 불과했

으나 2013년에는 7,640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추세 면에서 단연 전국 1위입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기게 되니 매년 3만6천여명에 달하던 인구 감소폭도 점점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1,504명에 머물렀습니다. 조만간 이러한 감소세마저 종지부를 찍고 인구 200만 회복도 가능하리라는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도민과 공직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전남의 운명을 바꿔보자’는 신념에서 비롯된 의미 있는 성적표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전남이 그동안 무수히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단기간에 이룩한 ‘남도의 기적’이라고 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위대한 도민들께서 풍요로운 전남 건설을 위협하는 위기요소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에서 축적된 에너지로 미래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시기가 반드시 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어 본 지역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지난 10년 동안 도민들과 함께 한 영광의 순간과 그 뒤에 숨겨진 땀, 그리고 아쉬움과 회한의 눈물 등 전라남도의 발자취들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후배들이 전남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꿈을 날짜와 함께 적으면 목표가 되고, 이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고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전남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목표를 나누고 계획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4년 6월





중앙대 명예교수, 전 농림부장관 김 성 훈

UN/IPCC(국가간 기후변화 협의기구)를 비롯한 많은 과학자, 미래학자들이 예견한대로 21세기 지구촌의 경제·사회적 화두는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물문제에 관한 대책이다. 특히 지구촌의 식량부족 문제는 이제 현실로 다가와 있다.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식량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구가 이미 10억을 넘었다. 중동과 아프리카,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로 인해 정권 퇴진 폭동마저 이어지고 ‘식량위기’, ‘식량안보’, ‘식품안전’, ‘식량주권’ 이란 단어가 공공연하게 보편화 되고 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다루어 온 식량·농업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하위권의 식량자급율(23%)을 기록하고 있어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세계 인구는 꾸준히 불어나 식량수요는 공급을 능가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로 인한 기상이변과 중국, 인도 등의 소득 증가에 따른 곡물 소비 급등으로 곡물의 수급과 가격 전망이 대단히 심각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50여개국들과의 FTA를 추진하여 농업부문, 특히 전남지역의 3농 부문(농업, 농촌, 농민)이 받는 타격(손실)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나마 한가닥 위안이라 하면, 2004년 도지사로 취임하자마자 이와 같은 상황을 예지하고 ‘녹색 전남’을 기치로 꾸준히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추진해 온 박준영지사가 있었다. 전국 최초로 도 단위의 친환경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고, 거기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하여 생명식품산업 진흥정책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농업, 농촌, 농업인을 함께 발전시키는 3농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자칫 산업화·개방화 과정에서 홀대받을 식량·농업문제를 전남에서는 도리어 역전의 기회와 도약의 기반으로 바꿔 놓은 10년이었다. 오늘날 전국의 무농약, 유기농 인증농가의 6할 이상을 전남이 차지하고 서울 등지의 학교 급식에 있어 전남의 친환경 농산물이 주요 단골이 되고 있다.

이제 명실공히 전남은 먹거리 문제에 관한 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친환경 농식품산업의 메카(성지)로서 식량위기(식품 안전성과 안보문제) 하에서도 오히려 국내외에 복받은 지역으로 우뚝 서 있다. 남도의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이 전 지구촌 친환경 인증면적의 0.4%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더욱 든든한 것은 친환경농업정책과 생명식품산업을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만 추진하지 않고, 수요자 중심의 판로 및 안전성, 유통경로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도지사 품질인증제 강화, 친환경농업 체험 활성화, 동물복지 강조, 어민주식회사, 녹색돼지 주식회사 등 규모의 경제화와 품질 및 안전성 강화 조치 등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시켰다. 전남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하여 서울시의 학교급식 쌀 절반을 전남 친환경쌀이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농 연대와 상생의 산 교훈의 장이 되고 있다.

아울러 일본과 중국에서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전남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박지사 치하의 전남도는 일찍부터 ‘1억원 이상의 부농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이미 연소득이 1억원이 넘는 가구가 5천가구에 육박하였으며, 이에 화답하여 귀농 귀촌 인구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모든 변화들이 전남 농업의 미래를 밝게 하는 든든한 대목이다.

물론 모든 일이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 언제나 좋은 정책의 추진에는 적지않은 난관이 부침하기 마련이다. 다만 어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고 박준영지사의 순수

한 열정을 믿고, 따라준 전남의 농축산인과 기초 지자체장들의 노고가 컸다고 본다.

박지사가 친환경농업정책을 취임 때부터 적극 추진한 배경은 앞서 말한 미래, 즉 오늘날의 국내외 식량문제를 미리 내다본 선견지명이 크게 빛을 보았지만, 본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은 인간의 건강과 자연생태계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박지사의 확고한 철학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GMO(유전자조작 식품)에 의한 각종 질병 유발과 불임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기농업을 추진했다고 알려지고 있어 박지사의 생명존중 정신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대한 애정이 물씬 묻어나는 증거로 해석된다.

박준영 지사가 전남도지사로 취임할 즈음 필자는 전남의 농업발전에 대해 조언을 부탁받고 함께 고민하던 때가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조언을 했다가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식량위기 상황을 정확히 내다보고 전남의 최대 강점인 농도로서의 잠재력을 십분 활용하여 적극적인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통해 농업도 살리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준비된’ 박준영지사의 의지에 감동하고 적극 동조했다는 말이 정확하다. 그럼에도 공·사석에서 박지사는 여러 전문가와 농업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그 공을 돌리는 겸양지덕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물론 그 당시의 지역사회 분위기는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농업에서 찾는 것은 엄두를 내기 어려웠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나 중요성 또한 저조하던 시점이었다. 상당수 전문가나 공직자는 물론, 농업인들조차도 친환경농업에 대해 반신반의하던 분위기였다. 만약 박지사가 뚜렷한 소신과 철학이 부족하고 시류를 중시하는 통상적인 정치인이었다면, 아마도 오늘의 전남 친환경농업의 위상은 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행히 후임 이낙연 도지사 역시 국회의원 시절 내내 박지사의 정신적 동지로서 전남의 친환경농업 정책과 추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던 분이다. 바라건데 전남의 생명식품산업 진흥정책과 3농정책 등 녹색발전전략이 민선 6기에서 한층 보강되어 생명농업인이 존경받고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부자농민이 가장 많이 배출할 것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그리하여 전남이 살고싶은 농촌, 행복한 도농상생의 일터요, 살림터로서 자리를 굳건히 하기를 기원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정책을 토대로 한 “녹색의 땅” 발전전략이 여타 산업, 교육, 문화, 예술 전 분야로 그리고 전국적, 세계 속으로 파급되는 것이 바야흐로 FTA와 기상이변 시대에 효과적인 국정운영 방책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기 바란다. 아울러, 박지사가 미완성한 전남의 ‘천혜의 다도해’ 발전사업을 후임지사의 영도 아래 적극 ‘친자연적’으로 추진, 전남이 세계에 자랑할 관광, 문화, 수산 및 해양 자원의 보물단지로서 그리고 성장동력으로 크게 가꾸어 지기 바란다.

이같은 희망에서 「100년을 그린 10년의 발자취」 발간을 중심으로 축하하며 박준영지사와 전라남도의 앞길에 신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2014년 6월



축 사







## 먹을거리와 참살이를 개척한 전남 도정 3,650일의 기록

### 버려진 땅 전남

전남도정 10년(全南道政 10年: 2004년 6월-2014년 6월)은 2004년 6월 박준영(朴峻瑩) 지사가 당선되어 취임한 이래 3선 10년에 걸친 재임 기간 펼쳐 온 도정과 함께 시작된다. 지난 10년 동안 전라남도는 도의회와 도청 공무원, 각 시·군의 지자체장과 의회, 도민들이 힘을 합쳐 낙후된 전남의 발전을 위해 헤쳐온 힘든 길이었다.

힘든 길이라고 한 것은 전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인구, 자원, 기업, 기간시설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거나 열악하여 그것을 극복하고 전진해가는데 많은 난관이 있었음을 지적하는 말이다.

박준영 도지사를 민선 3, 4, 5기의 수장으로 맞이한 이래 전남도는 전임 박태영(朴泰榮) 도지사가 펼쳐온 성과를 이어받고 한편으로는 전남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백지에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힘써왔다. 언제부터인가 전남 도민과 공직자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왔다. 심지어는 버려진 땅이라는 자괴감까지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소외감의 근저에는 경부축으로 한 산업발전을 통해 일본, 미국, 유럽 등지로의 수출 증대라고 하는 거시적인 국가적 전략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004년 당시 전남은 인구가 200만명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었으며, 해마다 곡성군 인구에 버금가는 3만6,000명 가량의 도민이 감소하고 있었다. 이 같은 인구감소는 단적으로 말해서 그만큼 전남이 사람 살기가 어려워진 땅임을 방증

하는 것이었다.

그럴 것이 여수와 광양 등에 산업시설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남은 수입이 되지 않은 농업, 수산업, 축산업 상품을 생산하는 1차 산업 기지였고, 여기서 벗어날 돌파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전남도를 운영하는 데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다. 2004년 당시 전남도의 세수는 3,000억 원에 불과했다. 재원의 대부분은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취득, 등록세 중 중앙정부가 떼어준 것이 거의 전부였다. 이 재원은 전남도내 각급 공무원 1년치 임금에 지나지 않았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1년 세수(稅收)에도 못 미치는, 9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재정 형편이었다.

게다가 전남도는 기업도 많지 않아 일자리가 부족했다. 당면 문제인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기업유치가 시급한 과제였다. 근대화가 되면서 다른 지역은 공단이 들어가서 모두 공업화가 되었으나, 전남은 산업시설이라야 여수와 광양밖에 없다시피했다. 공단을 조성해 분양을 해도 겨우 40%를 밀돌았으며 공장입주도 50%가 넘지 않았다. 그 외에는 농수산업밖에 없는 데 그것으로는 인구가 늘어날 수 없는 구조였다.

전남의 살림살이는 1년에 약 5조 정도가 소요된다. 세수 3,000억원으로는 턱도 없다. 전남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란 것도 대부분 국가사업이다. 도가 벌이는 사업들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반, 도가 반을 부담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3조 정도가 소요된다.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11%로, 중앙정부에 크게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게다가 도민의 주요 생업이 1차 산업이다 보니 나날이 고령화되는 인구 분포, 그리고 태풍이나 가뭄이 오면 꼼짝없이 직격탄을 맞는 농업, 연근해 어업과 양식업이 잘 되지 않아 큰 소득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생산한 농수축산품마저 원활치 못한 판로와 유통, FTA 등 개방화라는 악조건에 둘러싸여 있었다.

10년 전 박준영 지사는 취임 1년여 동안 전남도 각 지역, 농촌과 어촌, 섬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전남의 '문제'를 현장에서 찾기 시작했다. 전남의 미래를 구상하기 위한 현장 답사였던 것이다. 전남 발전의 틀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그는 고심 끝에 전남의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 ‘녹색의 땅’을 선포하다

2005년 8월 박준영 지사는 도청직원과 각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의 땅’을 선포하였다. 이는 1년 4개월 동안 전라남도 각 지역을 방문, 답사한 후 얻어낸 전남 도정을 이끌어갈 철학과 비전을 담은 것으로, 장차 이를 전남의 브랜드로 삼기 위해 명명(命名)한 것이었다.

전남을 녹색의 땅으로 선포한 이후 도는 모든 정책을 여기에 집중했고 전남은 점차 생기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오랜 동안 버려진 ‘과거의 땅’으로 여겨졌던 척박한 전남에서 천혜의 보고가 묻혀 있는 ‘미래의 땅’이라는 쪽으로 조금씩 인식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21세기를 주도해나갈 세계 산업은 크게 IT산업과 식품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IT산업은 하루가 멀다 하고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도 선두 그룹에 끼어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식품산업이 왜 미래산업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세계 인구는 2014년 현재 70억명을 넘어섰고, 2050년엔 90억명을 상회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이 거대한 지구촌 인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먹을거리 확보, 그것도 화학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먹을거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남의 땅은 우리 국가적으로는 물론이고,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를 향해 친환경 농수축산품을 공급할 기회를 맞고 있는 미래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바로 녹색의 땅이라 명명한 진의가 숨어 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전남의 브랜드가 된 ‘녹색의 땅’이라는 도정 철학에는 공간적으로 22개 시·군이 관할하고 있는 산과 들, 강이 흐르는 땅만이 아니라, 2,219개의 섬을 끌어안은 바다까지를 포함한다. 도민이 전남 땅을 오랜 동안 중앙으로부터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바다는 사실상 도민이 오랜 기간 버려둔 잠자고 있는 땅이었다.

21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식품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시대다. 쌀 같은 곡물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미 국민소득이 높아진 선진국에서는 수산품이 주요 먹을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게다가 전남은 바로 앞에 중국이라고 하는 13억 인구의 거대 시장을 두고 있다. 발전하는 농업기술은 가뭄, 염분, 극열에 강한 씨앗의 개발도 조만간 이루어져 식품시장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른바 2차 녹색혁명이 그것이다.

2014년 5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 의하면, 1차 녹색혁명을 통한 쌀 생산량 증가는 임계치에 다달았으나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인구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고 있다. 쌀 소비량은 매년 1.2~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쌀 생산량 증가추세는 그 절반에 불과하다는 통계자료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 현상은 세계적으로 작물의 평균 생산량을 떨어뜨리고 있다. 밤사이 지속되는 고온이 작물의 낮은 생산량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 가용 농경지마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곡창지대인 우리 전남은 새로운 희망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 즉, 2차 녹색혁명을 통해 발전을 도모할 기회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차 녹색혁명은 생산량을 높이는 것과 함께 예를 들면, 쌀 품종에 비타민 A와 같은 영양소의 보완까지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바다는 어떤가. 전남은 전 국토의 37%나 되는 바다를 차지한다. 그 바다에는 세계 5대 갯벌에 꼽히는 양질의 갯벌이 펼쳐져 있고, 청정한 바다에는 해조류와 물고기, 어패류 양식장이 널려 있어, 21세기 식량의 보고(寶庫)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물고기를 포함하여 각종 해조류, 전복, 해삼, 꼬막 등 수산물은 나날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국내는 물론 중국 등지의 시장 수요를 내다볼 때 황금시대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남은 바야흐로 해양의 '서부시대'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전남이 바로 중국과 동아시아로 진출하는 전초기지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중국이 잠자고 있던 1960~197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일본, 미국, 유럽 등지로의 경공업, 중공업제품 수출 전진기지로서 정부축이 산업화 기지를 담당해온 것이 불가피했다면, 중국과 동아시아가 새로운 먹거리 시장으로 등장한 21세기는 바로 전남이 전진기지가 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고 미래다.

이에 따라 국가발전의 중심축이 동부에서 호남으로 이동해오는 시대를 맞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른바 서해안 시대의 도래가 그것이다. 이 새로운 물결을 타기 위해서 전남은 곡물과 수산물, 해조류, 소금 같은 지구촌 어디에 내놓아도 비교우위에 있는 식품들의 질을 더 높이고 생산량을 더 늘려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녹색의 땅이라는 개념 속에는 식량자원의 증산과 함께 ‘바다 경영’이라고 하는 바다의 재발견을 통해 바다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자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전남의 맑은 공기와 일조량이 많은 햇볕, 조류, 바람 까지도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써 엄청난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이 오랜 기간 버려두었던 것들이 이제는 강점이 되어 빛을 발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난 10년 동안 가장 먼저 역점을 둔 정책은 전남에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는 것이 그 무엇보다 선결 문제였던 것. 이 문제는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과제이긴 하다. 하지만 전남은 기업유치면에서 볼 때 필요한 조건과 환경이 타 지자체보다 열악하다는 점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였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전남도는 도의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 공무원이 발벗고 나섰다. 농수축산가공기업,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타겟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나섰다. 처음엔 500개 기업을 목표로, 나중엔 2,000개를 목표로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유치활동을 벌였다.

텅 비어 있다시피한 대불산단도 겨우 입주를 마칠 수 있었다. 그 결과 전남의 특성을 살려 농수축산 가공기업, 신재생에너지 기업 등 그동안 4,067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14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매년 평균 3만6,000명씩 줄어들던 인구가 2013년 말 1,504명으로 대폭 줄어드는 성과로 나타났다.

기업유치와 함께 추진한 것은 전남 자체의 산업 소득을 높여 이농(離農)을 막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없이 추진해 온 친환경 농수축산업은 안전한 먹을거리와 웰빙 건강 수요를 타고 전남이 친환경 생물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는 데 기여했다.

실제로 전남의 친환경 정책은 간단한 수치로 입증된다. 전남도는 박준영 지사 임기 기간인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생명식품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세워 1차(2005~2009년, 투자액 1조799억 원)와 2차(2010~2014년, 투자액 1조 6,620억 원)로 나눠 수립해 시행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전남의 친환경농산물(유기농·무농약) 인증면적은 7만 5,948ha로, 전국 인증면적(12만7,124ha)의 60%를 차지한다. 2004년에 비해 인증면적이 20배 가량 늘었고, 친환경 농가수도 16배나 증가했다.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아 마침내 ‘친환경농업은 전남’, ‘전남은 친환경농업’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형성하며 농가소득의 향상을 가져왔다.

예컨대 까다로운 서울과 수도권 학교 학부모들의 눈높이를 맞춰 이들 학교 급식에 50% 이상의 식재료를 전남이 담당하고 있을 정도가 된 것이다. 처음에 친환경농업 정책을 시작할 때 농민 설득에 어려움이 많았다. 농약을 안 치고 어떻게 농업을 하겠느냐는 것이었다.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소득이 급증하자 이에 참여하는 농민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한편으로 친환경 농업은 생태계 복원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의 조사에 따르면 다슬기, 실지렁이, 실잠자리 등이 일반 재배지보다 6.9배나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남도는 기업유치의 확대를 통해서 1차산업 생산품을 가공하는 식품가공산업과 전남 천혜의 조건을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하늘이 내려준 풍광을 자원화한 관광사업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함으로써 2,3차 산업으로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켰다. 이와 함께 마그네슘 등 부품소재, 전기자동차 등 녹색산업, 섬 특성화 등 관광산업 등 비교우위 분야에 투자유치를 중점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기 시작했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유치 정책 외의 변화도 필요했다. 전남은 농어촌이 많지만 고령화로 치닫고 있어서 일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도처로 빠져나가고 빠져나간 농어촌의 일터에는 동남아시아의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실업률이 높다고 하지만 정작 농어촌 일터에는 가지 않으려 한다. 농어촌 일이 고되냐 하면 사실 그렇지만도 않다. 농번기 한때와 양식장에는 먹이를 줄 때만 바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그런 일자리를 꺼리는 까닭은 2,3년 일한다 해도 그것이 경력이 안 된다는 것이다.

박준영 지사는 이 점을 지적하고 전남도가 인력회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농장, 어장에서 일하는 것을 경력으로 만들어주려는 것이었다. 예컨대 전남산

업주식회사 같은 것을 세운다는 모안이다. 현재 정부는 이 같은 전남도의 제안을 법적 조율을 통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곧 결말이 날 것이라고 한다.

일자리는 국가나 도에서 하는 공공근로 분야도 있다. 고정직은 아니지만 유희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이다. 전남도는 이 부분에도 관심을 두고 노력을 기울였다. 물론 여성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마련 등도 빼놓을 수 없다.

## ‘3농정책’의 가치를 들다

기업유치 못지않게 가장 큰 문제는 농업을 살리는 일이었다. 부끄럽게도 전남의 농가부채는 9개 시도 중 1위에 달했다. 멀리 볼 때 농수산식품은 장래성이 큰 산업이다. 바로 친환경 농업이 그것이다. 농촌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전남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무엇보다 가장 큰 과제다. 그런 점에서 농업은 실질적으로 전남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산업이다.

전남도는 농업, 농촌, 농업인을 살리는 ‘3농정책’을 추진했다. 10년 전 농촌의 이미지는 대다수가 시멘트 블록 담장에 슬레이트 지붕을 한 검은 곱팡이가 낀 모습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인구를 유입하고 농업 발전을 꾀하는 것은 거리가 멀었다.

3농정책은 이 같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높이는 것발이었다. 그 일환으로 아주 작은 일, 그러나 절실한 사업부터 시작했다. 읍면 단위로 목욕탕을 짓기 시작했다. 군의 재정자립도도 10% 미만이어서 도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추진해 나갔다.

처음에는 운영을 못한다며 꺼려하던 기초단체장들이 도민의 환영을 받게 되자 지금은 리(里) 단위까지 목욕탕이 없는 곳이 거의 없게 되었다. 한옥마을 사업도 같은 취지에서 2005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농촌지역에서는 “지금 시대에 웬 한옥마을이냐”며 반대 여론이 높았고, 실제로 처음에는 한옥마을 신청자가 전무했다.

도는 시범적으로 몇 개 마을을 선정해 본격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다. 한옥마을 사업은 40여개 마을에서 시작하여 홈스테이 등으로 한 해 소득이 25억원에

달한다. 농업 외의 소득이다. 그러자 지금은 135개 마을에 한옥마을이 들어섰고, 이미 신청된 마을을 포함하면 곧 300개 한옥마을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옥마을의 민박, 농산물수확체험, 문화회관 수입 등으로 인한 농가 소득은 상당한 규모다.

전남도는 한옥마을을 ‘행복마을’로 부른다. 이농으로 주민이 텅 빈 마을에 한옥마을을 조성하자 3.3㎡(1평)당 5만원 하던 땅값이 20만원을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렇게 농촌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전남의 노력은 귀촌, 귀농, 소득증대 등으로 전남에 아연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3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학생들을 상대로 한 500억 원 장학금도 만들었다. 농어촌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것도 농촌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개 시·군에 한 개의 전통시장을 선정하여 현대화 작업을 시작한 것도 역시 같은 취지에서다. 그 전까지는 20~30개 지역의 전통시장에 매년 전통시장 지원 명목으로 1억 원씩을 지원해주어 일부 개선하는 정도에서 시행되었으나 큰 발전이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전남도는 정책을 바꾸어 각 시·군에 하나의 전통시장을 선정하여 현대화하는 정책을 실행했다. 비용은 크게 들었으나 도민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지금은 각 시·군으로 늘어나고 있다.

3농정책 중 또 다른 것이 ‘반찬사업’이다. 마을 단위에서 많이 나오는 식품을 반찬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마을 기업을 세워 가공, 유통을 하도록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얻어냈다. 당시 농산물수출액은 2,000만 달러 정도였다. 1개 중소기업 수출 정도로 미약했다. ‘전남은=반찬’이라는 공식이 성립되고부터 수출은 크게 늘고 있다. 지금은 농산물 수출이 3억 달러를 웃돈다.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한 농산물의 수익증대를 위해서 2006년부터 ‘1시·군 1유통회사’ 설립과 함께, 품목별로 해남배추회사, 무안황토고구마회사, 영암녹색무화과회사 같은 여러 회사를 설립했다. 축산 분야에서도 녹색돼지, 녹색계란, 녹색흑염소회사 등을 설립하여 수익증대를 꾀하고 있다.

10년 전 축산물 생산품은 대부분 항생제를 사용해서 친환경 먹을거리라고 이름할 수 없었다. 전남도는 친환경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남은 기후가 따뜻해 2모작을 한다. 벼 생산이 끝나면 곧바로 사료를 생산하여 소 먹이로 100% 공급할 수 있다.

미국처럼 소에게 유전자변형식품(GMO)인 콩, 옥수수를 먹여 키우는 것이 아니라 100% 벗짚을 먹여 키운다. 또 공장식 축산을 하지 않고 방목을 하여



키우도록 장려한다. 학교 운동장만큼이나 큰 방목장을 구입하도록 해서 구입 시에는 시·도에서 용자를 해주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유기농 축산을 넘어서 동물복지와도 관련 있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친환경 축산을 위해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친환경축산 원년’을 선포하고 인증제를 강화했다. 도의 이 같은 친환경 축산에 호응해서 오리, 닭들까지도 방사해서 키우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3농정책에 힘입어 전남의 농가부채는 전국 시도에서 가장 적어졌다. 2012년말 전국 평균보다 873만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남만의 강점 살린 녹색 바다경영

친환경 농축산물, 수산물 양식에 신경을 쓴다면 뻘어나갈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전남도는 판단했다. 하지만 정부는 거꾸로 양식 수산물이 많이 나오면 값이 하락하여 양식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안된다는 식으로 억제했다.

전남도는 ‘수산물은 수출하면 된다,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수산물 소비가 늘어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라는 전망을 밀고 나가 완도에 전복양식장을 대대적으로 조성하였다.

이미 진도에는 중국기술을 들여와 해삼양식을 하고 있었다. 당시 완도의 전복 양식장 규모가 600ha였던 것이 지금은 2,400ha로 크게 늘어났지만 값은 하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촌의 소득은 크게 늘어났다. 생산량이 늘자 시장이 확대되어 오히려 시장이 커진 것이다.

참고로 2012년 전남 도내 전복, 김 등 양식장 면적은 이전 해보다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8,500ha가 늘어난 2만7,700ha에 달했다. 정부가 신규어장 개발을 억제해온 김, 미역, 전복 등 8개 품종에 대해 확대 개발을 정부에 건의해 얻은 성과다.

전남의 바다경영은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자료를 볼 때 전남이 적절한 정책을 펴왔음을 뒷받침한다. 2014년 5월 유엔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생선소비량이 1960년엔 10kg이었으나 2012년엔 19kg으로 늘어났다. 생선 소비량 1억5,800만톤 가운데 양식이 절반이 넘는

9,000만톤을 차지했다. 양식어업은 해마다 늘고 있다.

일부 해양국가에서는 단백질 섭취량의 70% 이상을 생선에서 취하고 있다. 특히 세계 생선 생산량의 84%는 아시아인이 차지하고 있다. 광대한 바다를 가진 전남이 바다경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자료다.

전남이 추진한 바다 경영의 사례들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김도 물김을 생산 판매하던 것을 조미김으로 가공, 포장을 달리하여 수출량이 크게 늘어났고, 코스트코에 100% 수출하고 있다. 미국의 식탁에까지 전남의 조미김이 오를 정도로 전남의 해조류가 세계인의 식재료로 등장하고 있다. 오랜 동안 서양에서는 해조류를 가축의 사료로나 써왔고 동아시아처럼 식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근래에 웰빙식품으로 인식하여 ‘바다의 잡초’(seaweed)에서 ‘바다의 채소’(sea vegetable)로 바뀌 부르기 시작했다.

전남은 미역도 염산을 쓰지 않는 양식법을 개발하고 포장방법을 다양화하여 판매량이 늘면서 수익이 크게 늘었다. 전남도는 미역을 미역과자, 미역주사, 미역드링크 같은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분야로 활용하는 방법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를 개별 어민들이 하다 보니 판로(販路)나 부가가치를 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전남도는 2009년부터 유통회사를 세웠다. 완도전북, 여수녹색멸치, 신안새우젓, 새고막회사 등이 그것이다. 품목별로 주식회사를 만들어 규모화, 기업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였다. 가령 10원 들어 가공을 하면 100원의 부가가치가 생겨나는 셈이다.

또한 바다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소들을 세워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완도에 해조류연구센터와 전북산업연구원을, 영광에 참조기산업연구센터, 진도에 해삼산업연구센터를 건립 중에 있다. 해남에 김 종자산업연구센터, 고흥에 바다송어산업연구센터와 해조류부산물가공연구센터, 장흥에 키조개혁신주산업화연구센터, 여수에 해양미세조류연구센터의 건립을 추진 중이고, 진도엔 뱀장어종묘연구센터를 건립 운영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에 힘입어 전남은 수산물 생산량도 2012년 112만9,000톤으로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43%를 차지했다. 특히 김·다시마·미역·톳 등은 전국 생산량의 85% 이상을 점하고 있다. 타 지역에 비해 절대 우위를 점하는 지역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해양·수산 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온 결과이자, 그동안 전남이 추진한 바다경영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수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종자산업이다. 전남에서 생산되는 김, 미역, 다시마 등 대다수 해조류가 상당 부분 로열티를 지급하는 일본 품종에 의존하고 있었다. 전남도는 '전남슈퍼김 1호'를 개발하여 특허등록을 하였고, 국산 김 종자를 통한 양식이 늘어나고 있다. 전남도는 어업인들의 수산물 종묘개발을 장려하여 우리도 로열티를 받는 생산을 하자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소금의 생산, 판매, 수익 증가는 전남도가 추진한 두드러진 성과 중 하나다. 전남은 전국 소금 생산량의 98%를 차지한다. 그러나 그동안 소금은 법적으로 광물(鑛物)로 분류되어 있어서 오랜 동안 생산, 유통, 판매와 수출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심지어 염전을 휴경(休耕)하면 보상금을 줄 정도로 당시의 소금 사업은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전남도는 3년에 걸친 정부와의 줄다리기 끝에 소금을 식품으로 분류하는 법을 제정하는 데 성공, 2005년부터 소금 산업을 새롭게 일으켰다. 유럽의 역사는 소금 쟁탈을 위한 역사라는 말도 있듯, 소금은 인류에게 필수 식품이다. 그런데 전국 소금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남의 소금은 브랜드를 창출하지 못한 채 포대에 담아 킬로그램 단위로 담겨 값싸게 팔리거나 정제염 공장에 헐값으로 팔려나가고 있었다.

전남도는 소금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목포대 한경식 교수에게 연구를 의뢰하여 전남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이 중국, 베트남, 호주 등 세계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는 소금보다도 질이 훨씬 뛰어나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전남의 소금은 짠맛을 내는 나트륨 성분이 80%, 나머지 20%는 마그네슘, 칼슘 등 미네랄 성분으로 되어 있어 나트륨 성분이 90%를 넘는 다른 나라의 소금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다는 프랑스의 계랑드 소금을 능가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섰다.

신안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현재 여러 고유상표를 달고 수요에 따라 다양한 용기에 담겨 식탁에 오르고 있다. 값도 계랑드 소금과 비슷한 가격대로 팔리는 소금까지 출현했다. 소금 소비가 늘다보니 염전이 휴경하기는커녕 오히려 염전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염전 매매값이 10년 동안 평균 400%가 올랐다는 사실이 한 마디로 전남의 소금 정책이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바다경영에서 수산물 양식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때때로 적조현상이 문제가 되었다. 한번 적조현상이 나타난 곳은 양식수산물에 초토화(焦土化)된다. 전남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임기응변식으로 황토(黃土)를 바다에

뿌리던 방식을 지양하고 물갈이를 통해 해결했다. 전남의 질 좋은 황토를 마구 파내 적조를 막는다며 바다에 뿌리는 것은 지극히 원시적인 대책인 것이다.

바다에 황토를 뿌리는 데만 한 번에 수십억 원이나 드는데, 비용도 문제이지만 황토를 파내면 지표의 두께가 얇아져 농사를 짓거나 식목을 할 때도 비료를 주어야 한다. 게다가 전남의 황토 역시 생활에 필요한 소중한 자원인데 이를 바다에 뿌리는 것은 오히려 손실이라 여겼던 것이다.

적조현상이 나타날 때 전기를 이용해 물갈이를 해서 산소를 공급하거나 수산물이 죽기 전 물고기를 미리 방류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 길게 보면 이익이다. 어민들을 설득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다 보니 전남은 적조 현상이 줄어들거나 나타나지 않았다. 돈도 적게 들고 자연순환식으로 적조현상을 해결한 것으로 발상의 전환이 큰 효과를 가져다준 대표적 성과이다.

## 솔라시도로 중국 관광객 사로잡는다

전남은 풍광이 뛰어나 남도 삼백리 곳곳이 관광지다. 한국의 그리스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풍광(風光)과 습속(習俗), 인정(人情)이 감동을 자아낸다. 하지만 국내 관광객은 물론 물밑 듯 찾아오는 중국 관광객이 전남을 찾아와도 묵을 곳과 놀 곳이 마땅치 않았다. 관광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대 혁신이 일어나야 할 분야다.

전남도는 관광프로젝트를 솔라시도(sola+sea+city)로 명명하고 영암, 해남 등 4개 지구에 해양관광복합도시를 조성해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쉬고 놀 수 있는 중국관광객의 행락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경제성이 있다하여 국비(國費)나 도비(道費)가 아닌 순수한 민간자본이 들어와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해외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속속 투자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에서는 한해에 8,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해외로 쏟아져 나오지만, 그 가운데 고작 400만 명이 한국을 찾는다. 한국에 와도 마땅히 갈 곳, 머물 곳이 없어 대부분 쇼핑만 하고 간다. 전남도는 중국 관광객이 서해안의 특성화된 섬에서 관광을 즐기고 제주나 서울을 거쳐 돌아가도록 하는 관광 진흥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남도는 다도해 섬의 특성을 살린 관광자원화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개발했다. 예컨대 어느 섬은 동물의 섬, 어느 섬은 원시의 섬으로 꾸미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원시의 섬이라고 해서 오두막을 시멘트로 짓는 등 시행착오가 있었다.

동물의 섬은 멸종되어가는 동물도 많아서 동물을 종류별로 갖춰놓고 섬 하나를 아예 동물 섬으로 만들어 사파리처럼 운영하자는 계획이었다. 도초를 선정한 이유는 섬 모양이 양 옆이 높고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어 사파리섬으로 운영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섬들을 특성화해서 전남이 개발해간다면 다도해의 섬들은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전남도는 다른 섬들도 그 섬에 맞는 '섬 특성화' 개발을 추진 중이다.

##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녹색의 땅이라는 개념에서 또 다른 중요한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다. 하지만 그런 사업을 하기에 전남은 기반시설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었다. 도는 전남의 자원이 천혜(天惠)의 땅에 있음을 간파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했다.

전남은 6,400km에 달하는 리아스식 해안선을 끼고 있으며, 그 길이는 한국 전체의 45%에 달한다. 갯벌은 그 면적이 1,000km<sup>2</sup>로 세계 5개 갯벌에 들어갈 정도로 넓고, 섬은 전국 섬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일조량은 전국 평균에 비해 10%나 더 많다.

기후를 놓고 보아도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다. 이러한 천혜의 환경은 엄청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전남도는 이 같은 환경과 햇볕과 조류, 바람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내에 태양광발전 기업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전남도는 독일의 세계적 태양광 기업 쉘텐그룹과 접촉했다. 그러나 국내에 파트너를 찾을 수 없어서 2년만에 철수하고 말았다. 전남은 조류와 풍속을 이용한 발전소를 운영해 한때 전국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50%를 차지했다. 전남도는 현재 해상 풍력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작단계다.

전남도는 지역 특산품 개발을 위해 박준영 지사의 재임기간 동안 지역의 자원들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드는 생물산업을 추진해왔다. 산과 바다와 땅, 드넓은 갯벌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 기능성 생물자원을 먹을거리 산업으로 일으키기 위한 생물산업에 도전하고 있다.

이들 생산품의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설립해 산하에 7개 특화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생물산업의 부가가치를 찾고 있다. 도내 특산 자원인 매실, 울금, 멸꼴, 황칠 등 타지역에 비해서 비교우위에 있는 생물자원 122종을 골라 지속적으로 성분분석 등 연구결과를 자료화 해 생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 신약물질 등 125건의 특허출원을 통해 25건의 특허 등록을 마쳤다. 현재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분야를 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지역의 비교우위 특산자원과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것들 역시 버려진 바다의 가치를 발견하려는 정책들이다.

전통적인 해조류 양식과 판로를 개선하고 해조류 성분 분석 등 생산증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과학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해조류연구소를 설립했다. 전복연구소, 해파리 연구, 꼬막연구소도 설립했다. 미래의 먹을거리와 관련지어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생물산업연구소도 7개나 설립했다. 화순에 생물의학연구원, 나주에 식품산업연구원, 장성에 나노바이오연구원, 곡성에 생물방재연구원, 장흥에 천연자원연구원, 그리고 완도에 해양바이오연구원 등이 그것이다.

앞으로도 지천으로 널려 있는 전남의 바다생물과 육지생물의 성분을 연구할 것들이 많다. 가령 논농사에 방해식물인 독새기(뚝새풀)의 경우만 해도 오히려 논농사보다 독새기 농사가 나올지도 모를 정도로 인체에 유익한 물질이 들어 있는 것이 밝혀졌다.

실제로 전남도가 전남한방진흥원에 의뢰해 연구한 결과, 독새기에는 항염증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멸꼴이라고 부르는 담쟁이도 성분분석을 해보았더니 관절염 치료에 좋고, 진통 성분이 화학물질보다 더 우수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에서는 영진약품에 의뢰하여 의약품으로 생산하여 인정을 받고 현재 미국에서도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처럼 전남 땅에는 해조류뿐만 아니라 풀, 나무, 열매 등 연구해볼 것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 전남이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장차 미래의 먹을거리로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가를 시사해주는 것들이다. 전남은 결코 버려진 땅이 아니다. 풀 한포기, 열매, 꽃, 해조류, 마(麻)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그 가치를 찾아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전남도는 줄기차게 전남의 특성에 맞는 개발을 주창하여 그 일환으로 강진에 환경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옆에 환경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전남은 현재도 유일하지만 전국 최초로 '환경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바다 경영이 전남 도정의 주요한 정책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여기에는 도로, 공항, 철도 등의 확충 보완이 필수적이다. 전남은 서울-광주 간 고속도로를 완도까지 잇는 계획을 정부를 설득해서 결실을 맺었다. 이로서 전남의 남쪽 바다는 대양으로, 내륙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전환을 맞게 된 것이다.

전남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또 다른 사회간접자본(SOC)은 고속철도다. 2014년에 서울-광주 선이 완공된 후 목포까지 이어질 계획으로, 호남고속철을 무안공항을 경유해서 이어지도록 정부에 끈질기게 건의하고 있는 중이다.

전남도의 구상대로 호남고속전철이 무안공항을 경유해서 목포에 이르면, 전남은 딱 막힌 혈관이 뚫리는 듯한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논산에서 무안공항까지 30분, 익산에서 20분밖에 걸리지 않게 된다. 전남도의 야심찬 전남 발전 정책은 이 계획에서 정점을 이룰 것이다.

무안공항은 550만 호남사람들은 물론 충청도민까지도 이용하는 명실공히 국제공항으로서 기능을 맡게 될 것이고, 고속철도는 서울에서 목포까지를 2시간 생활 공간으로 좁혀놓을 것이다. 2시간대라면 굳이 서울에서 광주나 목포를 오는데 비행기를 탈 필요가 없게 된다. 이에 따른 물동량의 활발한 흐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심하게 말해서 전남은 바로 수도권의 친환경 먹거리 생산 기지가 될 것이다.

또한, 관광명소 흑산도는 목포에서 130km가 떨어져 있다. 쾌속선으로도 2시간이 걸린다. 전남도는 흑산도에 경비행기가 뜰 수 있는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울릉도와 함께 2019년까지 국가계획으로 추진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낙도로 치부하던 홍도, 흑산도 사람들은 무안공항까지 바로 경비행기로 오갈 수 있게 된다.

하늘길이 열리면 전남의 바다는 관광지로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다도해는 이제 사람이 사는 섬은 거의 다 연륙, 연도로 다리를 놓아 연륙연도가 된 섬이

105개나 되었다. 육지와 가까운 섬들은 거의 다 섬 아닌 섬으로 변모한 것이다.

또한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나주에 빛가람 혁신도시를 조성했다. 여기에 한전을 비롯한 농어촌, 문화예술, IT관련 16개의 공기업, 기관이 입주했거나 이전 중이다. 참여정부 때 광양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이미 50%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영암의 F1 경기장 주변엔 모터스포츠사업클러스터 사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기업들이 들어와 부품 소재, 골프장 카트 등을 조립하거나 만들고 있다. F1 대회 유치 결과로 얻어진 시너지 효과로, 전남은 한국을 대표해 글로벌 부품시장을 상대로 최고 수준의 자동차 부품 생산에 도전장을 낸 것이다.

전남은 농촌, 산지, 해안가, 골프장 주변 등 은퇴도시를 조성할 입지로서 적합한 곳들이 많아, 적지를 모색한 끝에 48개 후보지 가운데 은퇴도시 조성 지역을 선정했다. 사업성이 높아지자 민간기업이 뛰어들어 장흥, 곡성, 담양, 무안 등지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다.

은퇴도시의 조건은 천혜의 환경에 덧붙여 레저와 의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은 각 군마다 골프장 허가권을 시·군에 넘겨 조성토록 하고 해안가에는 요트장을, 한방과 양의의 은퇴한 의사들이 진료하는 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은퇴도시에서 또 중요한 것은 온화한 기후와 맑은 공기다. 전남은 국내 타 시도에 비해 은퇴도시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도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등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음이온도 많고, 앞서 지적한 대로 햇볕의 양도 수도권보다 10%나 더 많다. 근래 서울과 수도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중국발 요인이 30%, 나머지는 도심에서 생겨나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타이어 마모가 주를 이룬다. 전남은 그 정도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은퇴도시로서 국내에서 호남만한 곳을 달리 찾기 어렵다. 전남도는 이런 천혜의 조건을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은퇴도시 조성 계획을 착착 진행 중에 있다.



## 맞춤형 복지로 생기를 불어넣다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루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복지는 정부의 주요 어젠다가 되었다. 국민의 복지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남은 인구 분포 특성상 복지 수요가 많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도가 재정을 대고 민간인 중심으로 운영하는 전남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금융자산이 400만원 이하의 위기가정에 긴급지원책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는데, 생계, 의료, 복지, 주거, 교육 등에 걸쳐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엔 대략 5,500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장애인을 위한 ‘무지개마을’도 조성하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합평에 24만㎡(7만2,600평)의 부지에 장애인 생업용 근로시설을 국가사업으로 건립 중이다. 무지개 마을의 특색은 장애인만이 일하는 곳이 아니라 대기업과 연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자립형 모델로서 노인전문요양원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과거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사회적 역할이나 취업, 인권 차원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 특히 전남은 대부분 농어업에 종사하는 고령여성들이 많은 편이어서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남은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여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왔다. 1997년부터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왔고, 전남도와 시·군이 발전기금을 분담하여 2006년 말까지 35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공모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심의 평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성폭력방지, 다문화가정의 여성 지원에도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09년 7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산부인과 발대식’,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전남운동본부 발대식을 치렀다. 이와 함께 보성군, 영암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등 임신부 약 1,200명을 월 2회 방문하여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이주여성도 포함하여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은 경남, 경북, 충북, 강원도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2012년부터 0~5세 이하의 영·유아 무상보육을 확대 실시하여 2013년엔 5만3,000여 명이 보육료 지원을 받았다. 전남도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여성인력의 활용, 여성의 사회적 성취욕구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아직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분담이 증대되어야 하는 문제가 해결 사항으로 남아 있다.

박준영 지사는 많은 예산과 노력이 투입된 영·유아 무상 보육이 부모가 아동 모두가 만족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아기 울음소리’는 더욱 절실한 여성 지원책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로 전남도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꾸준히 여성 지원책을 늘려가고 있다.

여성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전남도는 해마다 여성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도내 500여개 구직여성의 자료를 분석해 사이트를 구축하고, 2007년 여성만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열었는데, 성과를 거두어 2008년부터는 ‘전남여성취업, 창업박람회’ 명칭을 바꾸어 주요 시·군을 순회하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중이다.

## 행복의원, 나무은행... 현장을 끌어안는 행정

전남도는 현장이 부르는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애써왔다. 현장은 미세하고, 작고, 눈에 잘 안띄는 부분이지만 도민들에겐 그것들이 거대담론보다 훨씬 더 긴급하고 절실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10년 동안 중앙정부와 함께 굵직한 사업들이 많았지만 그런 문제들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거나 편익을 주는 데는 비껴나가는 부분이 남기 마련이었다.

바로 이 점을 주목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작은 정책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이의 일환으로 농업인의 보증재단 이용을 쉽게 하도록 조치했다. 담보를 댈 것이 별로 없는 농민은 신용보증으로 돈을 차용할 길이 없어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전남도는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담보 없이 아이디어만으로 돈을 꾸어주도록 했다. 지역사회이므로 담당자가 현장을 답사하고 결정하는데 유리하다는 점을 적용한 것이다. 전남도는 신용보증재단을 확장하여 영광 사람이 순천에 가서 돈을 빌리는 일이 없도록 지점 확대를 꾀하고 있는 중이다.

전남에는 226개의 유인(有人) 도서(島嶼)가 있다. 섬 주민들은 위급한 상황

이 발생해도 발 빠른 대처를 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하여 섬에 긴급의료 활동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응급의료헬기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남도는 은퇴의사를 초빙하여 농어촌 벽지의 의료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상주하는 ‘행복의원’ 제도를 실시해 현재 점차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현장중시의 행정은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제고한다. 전남은 ‘나무은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마다 시·군에서는 산림의 나무를 벌목하는데 20~30억 원씩 들여 나무를 숲아낸다. 전남은 이를 개선 시정하도록 산림청에 건의하여 좋은 나무는 벌목을 하지 말고 옮겨 심었다가 관공서나 공기업의 조경에 사용하도록 하고, 남은 나무는 목공예소나 공예가들이 목재로 쓰도록 하였다. 그래도 남은 나무들은 젓가락을 만들거나 잘게 부수어 친환경 농업의 거름으로 활용토록 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비용과 인력을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곡성군이 이에 대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발상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작은 것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한 셈이다.

## 국제박람회 개최 통해 세계 속의 전남으로 만들다

전남도는 지난 10년 동안 전국 9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국제박람회를 개최했다. 국제박람회는 단순히 축제나 이벤트를 위한 것이 아니다. 관련 분야의 생산품에 대한 수출길을 모색하고,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절호의 기회다.

현장에서 수출 계약을 맺는 것도 있고, 결연을 맺어 도움을 주고 받는 기회로 활용한다. 많은 돈과 인력을 들여 박람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남도는 전남의 특성을 활용한 많은 국제박람회를 개최해 해외 기업이나 바이어들에게 전남 시장의 접근을 열어주는 등 특기할만한 일들을 해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국제해조류박람회다. 전남 바다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해조류는 21세기의 식량자원으로, 또 에너지원이 된다는 전망에서 전남도는 해마다 이를 개최할 계획이다. 관련 연구기관에 해조류에 대한 성분 분석,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생산 판매에 활용하고 있다.

2012년국제농업박람회는 전남이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외국 시장에 홍보하고 바이어를 끌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했던 것이다. 전남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의 세계 시장 가능성을 확인한 기회였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는 세계적인 주목을 끈 박람회로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박람회장에서 바다환경 개선을 선언한 바 있다. 이른바 ‘여수선언’이다. 주관부처가 국토해양부인데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하여 전남도가 나서서 여수선언의 후속 사업을 정책으로 삼아 추진해왔다. 여수를 해양관광중심도시로 육성하는 계획이 그 일환이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 성공에 힘입어 전남도는 이 지역을 국제정원으로 지정키 위해 노력 중인데 곧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내외를 대상으로도 수차례 박람회를 열어 전남을 홍보하고 전남 생산품의 판로를 개척했다.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를 최초로 장흥 천관산 자락에서 개최해서 한방과 현대의학의 접목을 꾀했는데,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국내의 주요 의료기관은 물론 중국, 일본, 인도의 전통의술까지 참여해 대한민국 대표 건강박람회로 자리매김했다.

전남도가 매년 개최하는 이 박람회에서 현대의 첨단의술과 한방의술을 전시하여 양방과 한방의 교류 협력의 길도 찾고, 협업의 가능성도 타진한다. 세계 3대 환경성 질환으로 알려진 아토피, 비염, 천식 같은 질병을 양한방 협진으로 치료하는 치료법을 모색하는 등 박람회의 성과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힘을 얻은 전남도는 동서양 의학과 보완 대체의료를 아우르는 통합의학에 관심을 갖고 2007년 10월 ‘통합의학국제심포지움’이 같은 해 12월에는 ‘한중 동양의학심포지움’을 열기도 했다.

이 분야의 블루오션을 발견한 전남은 장차 우리나라의 우수한 양·한방 의료와 전남의 천혜의 치유자원을 접목하여 나간다면 장흥통합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통합의료 중심지로 설 날이 머지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 전남의 '녹색의 땅' 비전,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지난 10년간의 전남도정은 남도에 맞는 최적화된 정책, 자연적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녹색 성장'으로 개념화하고 이 비전 아래서 3농 정책을 펴서 육지의 친환경 농업과 함께 바다에서 수산물의 대량 양식의 길을 열어가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 농수축산품의 먹을거리로서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익증대를 실현하고, 바다 경영을 통해 수산물, 해조류의 증산, 생물자원의 연구를 위한 관련 연구소들을 설립하고, 환경 기업을 유치하고, 맞춤형 복지정책을 펴왔다. 새롭게 시도해서 성공한 정책들이 많았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실행 과정은 본격적으로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다.

전남도가 실시한 정책들 중에는 미흡한 것들도 있다. F1 개최는 당초 계획에 못 미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암 구석진 땅에 F1관람객이 17만명이나 운집할 정도로 상황을 이루었지만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몇 년만 계속된다면 충분히 반전시킬 것으로 본다.

거액이 소요된 F1경기장은 현재 1년 중 250일 정도는 국내 4대 모터스포츠 대회를 포함한 자동차 연관기업의 신기술테스트 및 고객 초청행사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적자폭을 점차 줄여가고 있다. 이에 더해 주변에 자동차 부품 관련 산업을 유치해서 새롭게 활용할 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는 중이다.

전남의 특성과 접목하여 성공시킨 크고 작은 정책들은 농어민에게 자신들의 생업이 얼마든지 생산, 유통, 판로를 바꾸면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영감을 준 것이 10년 도정의 가장 큰 족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남도는 정책의 입안, 실행 과정에서 전남의 재발견에 역점을 두고 미래로 가는 궤도를 놓는 데 힘을 다했다.

지난 10년 동안 박준영 지사를 중심으로 도정을 펼쳐온 '녹색의 땅' 전남은 앞으로 새로운 10년, 20년으로 이어져 전남의 브랜드가 아니라 한국의 브랜드로 우뚝 서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전남은 지금 그 미래의 출발점에서 있다.

---

## 민선 3, 4, 5기(2004. 6~2014. 6) 10년의 발자취 및 주요 성과

---

- 1 5년 앞서 '녹색성장시대'를 예견할 만큼, 통찰력 있는 도정 실현
- 2 전남만의 특색과 강점을 지닌 '전남적' 발전정책 추진
- 3 활력·건강한 삶을 희구하는 사람이 '모여드는' 기반 완성
- 4 지역 내 균형발전을 통해 화합과 통합 지향
- 5 세방화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시대 적극 대응
- 6 광주·전남 / 남해안권 상생발전 주도

미리 '녹색성장시대'를 예견하고, 친환경농업 육성, 생명식품 개발 및 생물산업 진흥, 친환경 수산양식기반 구축, 대체(재생)에너지 개발, 3농정책 추진, 전통 한옥 중심 행복마을 및 은퇴자타운 등, 전남만의 특색과 강점을 지닌 녹색발전전략 중점 추진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해양관광특구, 호남고속철도, 공동혁신도시 등 국내·외 사람과 자본을 유인하기 위한 대규모 성장동력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고, 10년 동안 추진해 온 자구적 녹색발전전략 성과가 연계되면,

지난 10년, 활력과 건강을 희구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희망과 기대의 땅'으로 변모할 토대가 상당 부분 구축되었음.

## 1 5년 앞서 '녹색성장시대'를 예견할 만큼, 통찰력 있는 도정 실현

□ 일찍이 '녹색성장시대'를 예견하고, 캐치프레이즈를 '녹색의 땅 전남'으로 설정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생명식품 개발 및 생물산업 진흥, 대체에너지 개발, 행복마을·은퇴자타운 조성 등에 특화해 '녹색창조 선도지역' 토대 마련

▶ 전국 초유의 친환경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수산과 축산까지 확대해 '한반도 친환경 1번지'로 자리매김

- 수도권의 학교급식에서 전남산 농수산물 점유율이 54% 차지

▶ 농업·농촌·농업인살리기의 '3농정책'을 추진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전남 농가소득은 전국 시·도 가운데 중상위권으로 부상했고 농가부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소

▶ 역대 부농이 2006년 850명에서 2013년 4,065명으로 급증

□ 중화학공업 등 제조업 육성이 지역발전의 효과적 수단으로 여기던 시점에서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과 선견이 없었다면 추진하기 어려운 발상

- 대불산업단지가 조성된 후 15년 동안 분양률이 20% 선에 머물던 시점에서 추가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업용지 부족현상을 해소한 것도 통찰력에 기인한 결과
- 실현가능성이 높아지는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노선 건설이나, 목포~주간 해저터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국제해조류박람회 등은 멀리 내다보는 통찰력이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구상

## 2 전남만의 특색과 강점을 지닌 '전남적' 발전정책 추진

- 농도인 전남의 특성을 살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친환경농업정책을 추진하여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기준, 전국 대비 57%에 이르는 실적으로 한반도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부상
  - ⇒ 이를 토대로 개방시대 농어촌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업을 생명복합 산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토양 마련
  - ▶ 전국 119,442ha, 전남 67,798ha(유기농 6,547, 무농약 61,251)
    - ⇒ 2004년 대비 인증면적 48배(유기 16배, 무농약 62배), 농가수 43배 증가
  - ▶ 수도권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장 개척에 성공, 서울지역 1,293개교 476억원 매출 등 농업인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
  - ▶ 친환경농산물을 토대로 다가올 슬로우라이프시대 핵심산업으로 부상할 건강기능성 생명식품산업 토대 마련
  - ▶ 버려지다시피한 천일염을 광물에서 식품으로 변신시키고, 효능이 프랑스의 '계랑드' 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입증, 홍보하여 세계적인 특산물로 부각
  - ▶ 세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거북손 등 다양한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효능 개발에 매진하여 특허 인정
- 전국 최초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정책 추진 ⇒ 친환경축산 전초기지 부상
  - ▶ 2006년 단 5농가에 불과하던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가 2013년 말 기준, 3,872호에 이르러 전국 1위, 전국의 36% 차지



-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농·수산물 가공·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농·수산업의 기업화·규모화를 강력 추진하여 농어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창출

  - ▶ 전국 겨울 배추 소비량의 70%를 생산하는 해남 월동배추의 경우, 10년 전 매출액이 50억원에 불과했으나 김치공장 건립으로 매년 200억원 이상의 매출과 함께 200명 이상의 고용효과 창출
  - ▶ ‘녹색계란’, ‘녹색흑염소’, ‘녹색돼지’, ‘장흥한우’ 등 사육농가가 직접 출연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선진화된 가공·유통기능 강화
  - ▶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복, 새우젓, 멸치, 김 등 성장가능성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장흥무산 김(주)」 등 9개의 어업인주식회사 설립
  - ▶ 양식시설의 규모화·대형화 차원에서 조도(진도)와 비금도(신안) 등 냉수대가 흘러 적조피해가 없는 청정해역에 대중국 수출을 겨냥한 전복과 해삼 중심 양식섬 조성사업 추진
  
-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는 생약초 등을 한방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한방특구’로 지정받아 양 + 한방 통합의료 메카로 부상할 토대 마련

  - ▶ 전국 최초 한방산업연구원, 천연자원연구원, 한방의료기술 지주회사 설립
  
- 깨끗하고 청정한 공기의 질과 오염되지 않은 토양,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조량 등의 천혜의 자연여건을 잘 살려 행복마을, 은퇴자마을 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전남이 전통문화예술의 발상지라는 특성에 맞게 ‘한옥’을 도입하여 인구 전입 및 농가소득 증대

  - ▶ 135마을, 1,864동(완공 1,106, 조성 중 758동)의 한옥 중심 행복마을 조성
    - 73개의 행복마을에 2,290명의 인구가 전입했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096명이 타 시·도에서 유입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옥민박, 농특산물 판매,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73억원의 소득 증대효과 창출

- ▶ 장흥의「정남진 로하스타운」을 필두로 48개소의 은퇴자타운을 조성하여 풍요로운 인생 2모작 기회 부여
  
- 이러한 친환경 녹색발전전략의 추진 결과, 전국 최하위수준이었던 전남 농가소득은 전국 시·도 가운데 중상위권으로 부상했고 농가부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소
  - ▶ 2013년 전국 농가소득은 평균 3,452만원(전년 대비 349만원, 11.3% 증가)인데 반해, 전남은 전년 대비 763만원(29.1%) 증가한 3,386만원으로 2004년 전국 최하위 수준에서 중상위권으로 부상
  - ▶ 2012년 전국 농가부채는 2004년 대비 4.7% 증가한 반면, 전남 농가 부채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34.7% 감소하여 전국 최소지역 부상
  
- 동시에 전국 최대의 해양·도서자원인 섬, 갯벌, 맛깔스러운 음식 등을 활용하여 '동북아의 해양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하고, 거점 관광지로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를 조성 중이며, 깎리아시아일랜드, 4대 클러스터 구축, 남해연안 및 동북아권 크루즈 운항사업 추진 중
  - ▶ 전남을 찾는 관광객수 4,068만명으로 급증, 경기도(5,528만명)에 이어 전국 2위(3위 강원 3,269만명, 4위 경북 3,125만명, 5위 경남 3,082만명)
  - ▶ 2012여수세계박람회 이후 중국 중심 크루즈관광객 급증. 2014년 5월 2~12일 동안 중국관광객 2만 5천명 입항.
  
- 또한 인구유출의 최대 요인인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계획' 수립, '전남인재육성재단' 설립 등 추진

### 3 활력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이 '모여드는' 기반 완성

- 녹색발전전략과 관련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면서 전남의 인구 감소폭 현저히 저하 ⇒ 기 추진사업을 지속시키고, 관련 기업유치와 함께 귀농·귀어인력 및 웰빙과 힐링 수요를 유치하면 전남은 '활력과 건강을 희구하는 사람들의 안식처'로 탈바꿈 전망
  - ▶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1년 전남 인구는 234만 7,802명으로 전년에 비해 15만 9,136명 감소
  - ▶ 2004년 전남 인구 200만명선 붕괴(198만 6,192명)
  - ▶ 이후 매년 3만명 내외 인구 감소 ⇒ 특히 농어촌은 고령화와 함께 활력 상실
  - ▶ 2009년부터 인구감소 폭 둔화 시작(전년 대비 5,996명 감소)
  - ▶ 10년만인 2013년 1,504명 감소
  - ▶ 친환경농업 추진 등 녹색발전전략의 결과로 판단되며, 웰빙과 힐링, 생명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자신감 정착
  
- 2004년 이후 4,052개의 기업유치로 일자리 14만 5천개 창출. 특히 태양광, 풍력, 조류 등 전국 제 1의 대체에너지 생산지로서 미래성장동력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 마련
  - ▶ 친환경 농수축산물 가공·유통기업 유치 : 385개 기업  
(투자 13,893억원, 고용 9,010명)
  - ▶ 부품 신소재산업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유치 : 300개 기업  
(투자 36,956억원, 고용 10,872명)
  - ▶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유치 : 122개 기업(투자 8,085억원, 고용 2,560명)
  - ▶ 철강·화학 등 기타 : 637개 기업(투자 152,721억원, 고용 24,921명)
  - ▶ 이러한 투자유치실적에 힘입어 지난 10년간 '道稅' 신장율 9개 도 중 1위

	평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 (억원)	10,194	51,488	4,115	3,799	7,870	3,584	3,281	5,910	9,278	2,419
2013 (억원)	15,791	64,500	6,868	6,965	10,489	7,055	7,617	12,143	18,866	4,924
신장율 (%)	155	131	167	183	133	197	232	205	203	204

- 전남을 향한 귀농·귀촌인구 증가로 귀농·귀촌의 희망지역으로 부상
  - ▶ 1,521세대(2011) ⇒ 2,492세대(2012) ⇒ 3,261세대(2013)
  
- 질환 치유방식이 한방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통합의학에 의존하는 경향이 세계적으로 커지는 시점에서, 특히 현대 3대 환경성 질환(아토피, 비염, 천식) 치유·휴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전남으로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망
  - ▶ 친환경식품의 메카인 전남은 패스트푸드 대신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슬로우푸드가 성행하는 슬로우라이프생활의 최적지로 평가
  - ▶ 한방치료와 건강음식을 함께 맞볼 수 있는 '의료거주'의 중심지역 부상
  
- 건강하고 안락한 주거조건을 희망하는 장년층을 중심으로 전통 한옥을 찾아 전남에서 거주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 행복마을과 은퇴자타운을 중심으로 타 시·도 인구유입효과 발생

## 4 지역 내 균형발전을 통해 화합과 통합 지향

-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도내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쳐진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해 3농정책 등 지역내 균형발전정책 추진
- 기존의 지역발전구도인 '3핵 3축' 구도로 인해 지역간 격차가 심화된다는 판단 하에 소외지역인 중남부권을 별도로 독립시킨 '4권역' 구도 설정, 추진

- ▶ 중남부권에 미래 바이오산업의 원천이 될 한방특구 지정 및 해양바이오 센터 · 한방산업진흥원 · 천연자원연구원 설립,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및 통합의료센터 건립, 바이오산단(장흥) 조성, 전국 유일의 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환경산단(강진) 조성, 해양생물산업단지(완도) 조성

- 재원배분과 정부요청사업 부문에서 도청이 입지한 서남권보다는 '중남부권 · 동부권 우선' 원칙 견지
  - ▶ 2012여수세계박람회 · 2014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 ▶ 공동혁신도시 중부권(나주) 건설
  - ▶ 광양만권 신소재산업 기반 확충

## 5 세방화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시대 적극 대응

- 전남의 글로벌 홍보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최다의 글로벌 이벤트 개최
  - ▶ 2012여수세계박람회 : 800만여명, 동부권의 해양관광인프라 및 국내외 접근 교통망 확충
  - ▶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 50만여명(2011~2013) /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선도사업으로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기 마련
  - ▶ 2012국제농업박람회 : 115만여명, 전남 친환경농업 국내외 홍보 및 수출 촉진
  - ▶ 2013순천국제정원박람회 : 440만여명, 전국 최초 국가정원 지정 및 정원산업 선도모델 구축
  - ▶ 2014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 70만여명, 해조류산업 중요성 공감대 형성
- 정책 타겟을 외국의 지자체나 기업까지 확대한 개방적인 도정 추진
  - ▶ 10년 동안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10여개국, 16회 해외순방을 통해 생 명식품, 신 · 재생에너지, 정밀화학 등 45개 기업과 25억 9,660만달러 투자유치

- ▶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여수세계박람회특구 지정, 갯걸시 아일랜드 등 : 동북아의 해양관광명소 기반 구축
-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2003년 지정), 서남권경제자유구역(추진 중) : 중국 등 외국기업 투자유치 촉진
- ▶ 중국 질강성과 교류 강화, 강서성과 우호교류 촉진

## 6 광주 · 전남 / 남해안권 상생발전 주도

### □ 광주 · 전남 상생발전 추진

- ▶ 전국 초유의 광주 · 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을 통해 한전 등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 효과 ⇒ 광주 · 전남 신 · 재생에너지산업 메카 기반 구축
- ▶ 광주 · 전남 공동 국가산업단지인 빛그린산단(광산 삼도 · 함평 월야) 조성
- ▶ 광주권 제3순환도로(담양 수북~장성 남면~나주 산포~화순 도곡~화순읍, 104km, 건설 중, 2019년 완공 예정) 및 화순, 나주간 도시전철 연장 추진
- ▶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전남 주요 관광지간 벨트화 추진 및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등

### □ 부산, 경남 등 남해안권 시 · 도와 상생발전 주도

- ▶ 경남과 제주도의 협조 분위기 유도를 통해 2012여수세계박람회 국가계획 확정 시기(2004년 12월) 단축
- ▶ 경남, 부산과 함께 2005년부터 '남해안선벨트'의 모태인 남해안개발 공동 추진 주도

